

#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확대 급물살 가능성

### 정동영 의원,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 반영 입장 표명 공개 항목 기존 12개서 61개로 늘려...규제 강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조치가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앞서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상황인데, 주택법 개정안을 낸 정동영 민주당

회당 대표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도 좋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분양가 공개는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인데, 정 안 되면 시행령으로 해 달라"고 당부하자 김 장관은 "작년에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잘 알겠다"고 답했다.

법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식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도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굳이 법제화하기보다는 국토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관련 내용을 넣으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왕에 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법 통과 추이를 보고 있었다.

정 대표는 법 개정 이후 다시 분양원가 공개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 법

제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식 정보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이명박 정권인 2012년 3월 12개로 축소된 바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그간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따라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분양가 세부 내역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대폭 불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양가 공식 항목 확대는 어차피 하부 법령으로도 가능한 사안이었다"며 "정동영 대표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	2,287.61(-4.16)
코스닥	↓	815.18(-4.82)
원·달러·환율	■	1,123.50(-0.00)
금리(국고채 3년)	■	1.91(+0.01)

### "6.5인치 OLED 아이폰 이름 '아이폰 Xs 맥스'"

애플은 아이폰 6 이후 동일한 아이폰을 두 가지 크기의 버전으로 출시했다. 그리고 더 큰 버전에는 '플러스'라는 수식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패턴이 오는 12일로 예정된 아이폰 신제품 공개 때부터는 깨질 것으로 보인다고 애플 소식에 정통한 블로그 '9투5맥(9T05Mac)'이 6일 보도했다.

9투5맥은 "애플이 발표할 3종류의 아이폰 가운데 기존 아이폰 X의 업그레이드 대화면 모델이자, 지금까지 출시된 아이폰 가운데 가장 큰 버전인 6.5인치 OLED 아이폰의 이름을 '아이폰 Xs 맥스(Max)'로 명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9투5맥은 지난주 단독입수한 아이폰 신제품 사진을 공개하면서 골드 컬러가 추가된 5.8인치 아이폰 X의 업그레이드 모델 명칭은 '아이폰 Xs'가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들 두 모델 외에 아이폰 X의 얼굴인식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더 저렴한 LCD 스크린을 장착해 가격대가 700~1천 달러대로 알려진 신형 아이폰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애플리스트들은 '아이폰 9' 또는 '아이폰 XC'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새 아이폰 명칭이 Xs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인터넷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XS'는 영어권 국가에서 '엑스트라 스몰(초소형)'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사람들은 애플이 지금까지 내놓은 가장 큰 스마트폰을 '아이폰 엑스트라 스몰 맥스'로 부를 수도 있다"면서 "Xs는 또 큰 소리로 말하면 '엑세스(excess-과잉)'로도 발음될 수 있어 벌써 인터넷에서 신형 아이폰 이름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GS건설, 여수 '웅천자이 더 스위트' 분양

GS건설은 여수 웅천지구 관광휴양사업 C3-2블록 일대에 '웅천자이 더 스위트' 분양사업장을 열고 7일부터 분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속 박시설로, 여수 일대에서는 가장 높은 42층 규모로 들어선다.

4개 동에 전용면적 132~313㎡ 584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132㎡ 147실, 149㎡ 299실, 166㎡ 136실, 284㎡(펜트하우스) 1실, 313㎡(펜트하우스) 1실 등이다.

웅천자이 더 스위트는 GS건설이 전남 일대에 첫선을 보이는 '자이' 브랜드로, 생활속박시설 공급도 이번이 처음이다.

바다와 공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남향에 발코니를 도입했다.

시스템에어컨과 김치냉장고, 콤포비냉장고, 광파오븐, 드럼세탁기, 세탁건조기 등이 설치된다.

여수에서는 처음으로 남해를 바라볼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더 '클라우드36'이 들어서며, 입주인 전용 실내수영장인 '인도어풀'과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더 키친(조식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청약은 10~11일 웅천자이 더 스위트(suite.xi.co.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청약신청금은 1천만원이며 1인당 3건까지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는 12일 발표하며 13~14일 분양사업장에서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22년 3월 예정이다.



현대차, 더 뉴 아반떼 출시  
현대차는 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스튜디오 담'에서 이광국 현대차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 등 회사 관계자와 자동차 담당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시 행사 및 시승회를 갖고 더 뉴 아반떼의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 30·40세대 절반 "추석 스트레스 없다"

30~40대 절반 이상이 추석 등 명절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절반 가량은 추석 차례상에 간편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업체 티몬이 추석을 앞두고 30~40대 남녀 각 250명,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명절증후군을 겪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56.2%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과반수가 명절 때문에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며 여성 응답자 가운데 '명절증후군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44.8%, 전업주부는 42%였다.

명절증후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차례상 음식 준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에서 만든다'가 54.9%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일부 간편식을 활용한다'(38.9%), '대부분 완제품과 간편식을 활용한다'(5.6%), '상차림 업체에서 주문한다'(1%) 등 간편식을 활용한다는 응답도 45.5%나 됐다.

부모님을 위한 선물 금액은 15만 원 이상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10만~15만 원(29.6%), 5만~10만 원(23.4%)이 뒤를 이었다. 선물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7%였다.

## 광주전남 전통시장 가을축제 개최

### 중기부, 다음달 7일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은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14일부터 다음달 7일 광주·전남지역 18개 시장에서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가을축제는 시장별로 특색있는 문화공연, 체험행사, 경품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2016년부터 매년 가을에 열고 있다.

축제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서는 지역 자체단체 가을여행지, 테마축제 등과 연계한 자율프로그램을 만들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체험거리, 살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축제에서 대인시장과 지리산나들이장터는 야시장을 운영하고 양동시장과 양동건어물시장에서는 차·간객축제, 1913송정역시장에서는 퓨전국악공연 등을 개최하고, 시장별로 버스킹, 각설이예

술단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고객과 소통하는 다채로운 행사들도 함께 진행한다.

행사가간에 광주시·전남도 교육청과 함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체험 사진 공모전'도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가족단위 나들이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하고, 미래고객인 초·중학생들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옛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12명에게는 교육감상, 지방중기청장상, 상인연합회장상 부상이 수여되고 참가자들은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제갈대중 기자 dj2891@

Sunshine GWANGYANG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  
여성이 안전하고, 어르신이 건강한

행복도시\_광양

기사제보 2580@jndomin.kr